

보도시점 2026. 4. 29.(수) 06:00 (수요일 석간) 배포 2026. 4. 28.(화)

기후에너지환경부-충청남도, 지역의 환경보건 개선을 위해 머리 맞댄다

-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의 환경보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포럼)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9일 오전 충남연구원(충청남도 공주시 소재)에서 충청남도과 함께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의 환경보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환경보건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보건 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환경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보건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년부터 환경보건정보 빅데이터 분야 환경보건센터*로 한국환경연구원을 지정하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환경,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 27개 분야에서 322만여 건의 데이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지역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기관

이번 행사에서는 충남지역의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우선관리대상지역에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우선관리지역 선정부터 △환경개선 사업 이행 및 효과 분석,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건 개선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라며, “충남지역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여러 지방정부에 환경개선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보건 포럼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750)
		담당자	사무관	이승환 (044-201-6760)
	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정보 빅데이터 분야)	책임자	센터장	배현주 (044-415-7681)



□ 배경

- 충남지역의 환경보건 상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고, 지역 우선관리지역 파악 및 지역 환경보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 개요

- (일시/장소) '26.4.29.(수) 10:00~12:00, 충남연구원(충남 공주)
- (참석) 기후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연구원,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환경보건센터,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 주요내용

- 환경보건정보를 활용한 우선관리지역 선정
- 환경보건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 논의

□ 프로그램(안)

시 간		주요 내용
10:00~10:05	5'	■ 개회
10:05~11:55	110'	■ 전문가 발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배출량 ○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우선관리지역 선정 ○ 환경보건 개선 사업 및 정책 추진 방향
11:55~12:00	5'	■ 마무리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